X-mas 콘텐츠 무료 SKT, 1월 20일까지

SK텔레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모바일 음원 및 영상 구독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무상 지원 행사를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SKT는 작년 연말연시에 전국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12월 21일부터 올 해 1월 21일까지 펼쳐진 행사에 소상공인 1만 여 매장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캐럴 이즈 백' 프로젝트 시즌2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언택트로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주자'는 컨셉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진행한다. SKT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제한적으로 즐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캐럴 이즈 백' 시즌2 행사를 마련했다. 모바일 음악 플랫폼 '플로(FLO)'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wavve)', 보이는 컬러링 서비스 'V 컬러링' 등 모바일 구독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원 및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5GX 부스트파크(Boost Park)' 및 T멤버십 제휴 편의점, 음식점,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 매장에 크리스마스 캐럴 매장음악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경표 기자

3차 지원금 4조+α… "자영업자에 임대료 직접 지급"

임대로 직접 지원 어려워
부분 비율 지원 방식 유력
임대료 낮추면 세액공제

한 소상공인이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룡 기자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감염자가 하루 1000명을 기록하며 피해규모도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확산세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직접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과 기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이들을 합치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대상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3차 지원금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돼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료 지원의 기준과 방법, 규모, 법적 근거 마련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그중 '착한 임대인 정책'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간접 지원책이다. 정부는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임대료 직접 지원'은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은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했다. 캐나다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아 '임대료 전액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전액 지원'보다는 임대료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재난지원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영위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현재같은 수준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최유진 기자 amy311@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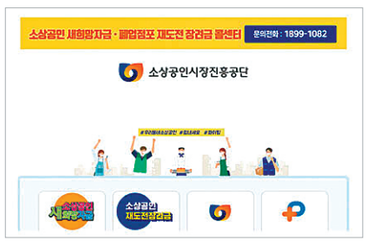
2017년 Print & Publishing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Fisherman 어부
Client: Pronto 프론토
Agency: RAY PRODUCTIONS PARIS 레이 프로덕션 파리
Product: Pronto Cafe 프론토 커피

Copy: Ready in an instant 커피 한잔마셨을 뿐인데 순식간에 어부로 변신성공.

소진공,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확대

정책자금 지원 업무 온라인 확대
모바일 '챗봇 서비스' 정보 접근성 개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스터. 사진=소진공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의 적극 시행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금지원을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는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챗봇상담 등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요자인 소상공인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부분에서는 정책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온라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소상공인들이 자금 신청을 위해 1~2일씩 생업을 중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소진공은 올해 2월부터 정책자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제증명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사전예약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증명 발급 3만 972건,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 1만 9806건, 직접대출 사전방문 예약 3만 8961건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발급과 예약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기 서비스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증명 발급서비스는 상시로, 대리대출 확인서와 직접대출 사전방문 예약은 정해진 신청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소진공은 공공기관 최초로 신한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정책자금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대출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4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참여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제출서류 중 하나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를 8월부터 온라인으로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전국 66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발급(출력)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이후 11월 말까지 온라인 발급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81%(5870건)을 기록했다.

소진공은 지난 11월 말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정보 등 소상공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챗봇서비스 '소담봇'은 그동안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이용 편의성은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해 언제어디서나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소담봇'은 세 개의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마당에 접속한 후 바탕화면에 있는 '챗봇' 버튼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소상공인 상담챗봇' 또는 '소담봇'을 검색 후 채널 추가를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외식 카드결제 10% 감소… 해산물·고깃집, 타격 컸다

외식중앙회-신한카드 보고서

코로나로 외식산업 중 해산물·고깃집과 주점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달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6일 한국외식업중앙회의 '2020년 대한민국 외식업계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한카드 외식업종 카드 결제 금액이 71조7,79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9조7,445억 원보다 10.0% 감소됐다.

월별 감소율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3월(18.1%), 4월(13.7%)과 8월(12.0%)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 유흥주점과 외국식 음식점업의 카드결제 금액이 37.1% 줄어 타격이 가장 컸으며, 이어 무도 유흥주점업 33.4%, 기타 주점업 28.7% 감소됐다.

한식 분야에서는 해산물과 고깃집 등의 타격이 컸다.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 19.3% 감소했고,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이 18.3% 줄어들었다.

반면 배달업종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배달 소비 분야 카드결제 금액은 1~9월 4조6,43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4%나 상승했다. 재택근무와 집콕족 등이 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 위기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집에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631명 늘었다고 밝혔다. 주말이었음에도 전날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α'에서 2.5단계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홍성인 기자 hsi0404@meconomynews.com